

# 정치권 네거티브에 불똥 튄 국제캠

TV조선, 고민정 학력위조 보도  
국제캠 총학 “구성원 분열조장”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가 정치권 네거티브 논쟁에 휘말렸다. 논란은 우리학교 국제캠 졸업생(졸업 당시 수원캠퍼스)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광진구을(乙)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학력논란에서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미래통합당 당원모임 대표 김영국 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고 후보의 학력이 허위 기재 됐다며 비판했다. 김 씨는 고 후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경희대학교 2003년 졸업·서울’이라 게시한 것을 학력위조라 지적했다. 이어 TV조선은 ‘뉴스TV조선’이라는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김 씨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 후보에게 “지방대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경희대학교 용인캠퍼스’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TV조선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국제캠 총학은 TV조선이 본교의 캠퍼스를 ‘용인캠퍼스’라 지칭하며 우리학교의 역사에 대해 언론사로서의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가 서로 다른 대학인 듯 한 분위기를 영상 전반에 걸쳐 내포했으며 구성원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규탄했다.

국제캠 양성민 총학생회장은 “영상과 관련해 TV조선에 항의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는 뉴스가 아닌 유튜브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TV조선 담당 PD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사과문을 게시해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이 발표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달 31일 TV조선 뉴미디어본부 제작팀은 유튜브 ‘뉴스터(NEWSTER)’



채널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는 경희대 국제캠퍼스가 이원화 캠퍼스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멘트를 사용한 점이 지적됐고 ‘용인캠퍼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도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잘못된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에 대해 제작진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졸업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의 사과문으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논란은 이내 재점화됐다. 지난 5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 광진구을(乙) 국회의원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후보자토론회 초청’ 영상에서 고 후보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구글(Google)에 고 후보의 대학시절 학력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 후보를 등록할 때 서울캠퍼스

라고 쓴 적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구글 프로필은 저희가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재·졸업생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해당 매체(TV조선)에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타 매체에서 학교 이원화 관련 사안에 대해 문의하자 확인답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기자는 우리학교가 이원화 캠퍼스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입시 사이트와 언론 등에 이원화 캠퍼스라는 것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없는 논란을 만들어 학교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과는 별개로 분교 당시 졸업생의 분교 졸업 소급 적용과 관련해 학사지원팀 박은규 행정차장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학위증으로는 캠퍼스를 구분할 수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분교이던 당시 졸업자는 분교 졸업생이며, 지금은 교육부의 이원화 인가를 받았지만 분교 졸업생이 분교 졸업생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중등교사 임용고시 역대 최다 합격 “교육대학원에 도움 받아”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우리학교가 2020학년도 전국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교육대학원 행정실은 지난 3월 “2020학년도 전국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현재까지 69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대학원에서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격 여부를 조사했고 회신 온 학생이 69명”이라며 “실제 합격자 수는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수는 2018년 38명, 2019년 46명에 올해 69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임용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교원임용고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임용고사반을 담당하는 조영하 교수는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 현직교사 특강, 교육학 특강,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임용 준비생들을 돕고자 했다”며, 특히 ‘잘 가르치는 교사 경연대회’와 ‘병설교 현직 교사 멘토링’을 임용고시 합격자 수 증가 비결로 꼽았다.

조 교수는 “잘 가르치는 교사 경연대회는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임용고시 2차 시험인 수업 실연을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직 임용고사 심사자를 경연대회에 모셔 실천처럼 코멘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설교 현직교사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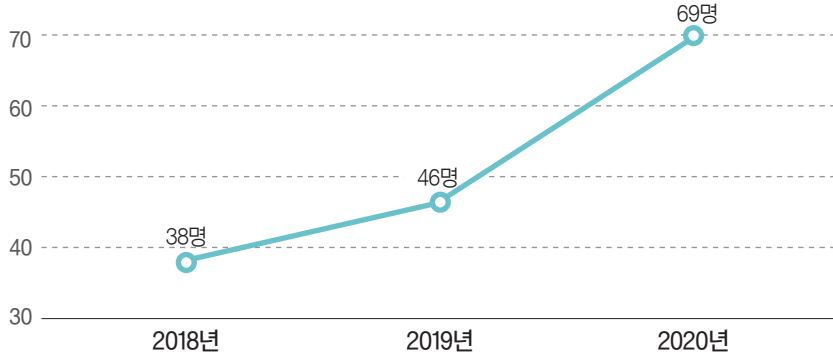
링에 대해서는 “병설교 교사진과 교원임용고사반 학생을 1대 1로 연결해 수업 기술은 물론 교직자의 삶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손광덕(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씨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경연대회를 통해 임용고시 2차 수업 실연을 대비했고, 방학 실기 특강에선 수업과 더불어 실기를 준비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잘 구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원임용고사반은 교육대학원생뿐 아니라 학부 교직 과정 이수생도 이용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우리학교는 사범대학교가 없어 교직 과정 학부생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없기에 학부생 혼자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시험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교원임용고사반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과정 학부생들도 교육대학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설교 네트워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 졸업생 박진우(물리학 2014) 씨는 교원임용고사반에서 시험을 준비해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박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혼자만의 공부 공간이 없었는데 교원임용고사반이 덕에 개인 공부 공간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교직팀의 수강료 지원과 교육대학원의 병설교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경희대학교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추이



## 용역으로 돌아가는 일부 청소노동자… 학교 측 “노동자 정규직화가 최종 목표”

이지민 기자 delcado@khu.ac.kr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노동자들을 채용했던 우리학교가 해당 계약이 만료돼 용역업체를 재선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경희대지부(노조)는 “자회사를 폐지한 학교 측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7월 자회사 ‘케이에코텍’과의 계약 만료 후 올해 청소 용역업체 ‘C&S’와 계약을 맺었다. 앞서 우리학교는 자회사 계약 종료일

자회사 ‘케이에코텍’ 계약 만료 후 용역업체 선정

한국노총 “학교 측 행위는 부당한 처사”

총무팀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사 기조는 그대로”

이 다가오자,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청소노동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서울캠퍼스(서울캠) 기준 총 135명 중 46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조 소속 노동자들 중 대다수는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자회사에 남은 상태다.

노조 박경선 지부장은 “5, 60대 청소노동자들이 임금과 관련된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기에 정규직화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지부장은 “자회사인 ‘케이에코텍’의 폐지가 불만족스럽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쟁하지 않는 것일 뿐 임금이 낮아지거나,

학교 측의 입장이 바뀔 경우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자회사 폐지와 동시에 용역 업체로 돌아가게 되면, 임금 인하 등의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우리학교는 청소노동자, 희망제작소와 함께 ‘사다리포럼’을 만들어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희모델’을 추진한 바 있다. 그 후 산학협력단에 자회사 ‘케이에코텍’을 설립해 2017년 ‘케이에코텍’과 계약을 맺었으며, 2018년 ‘기능직종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케이에코텍’과의 계약이 만료될 때 청소노동자 전원을 경희대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팀장은 “인사팀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급여를 낮춘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사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자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라고 전했다.